부산 노무사 AI 실무 · 3시간

채팅에서 지휘로

여러분 19명이 답한 사전 설문으로 만든 강의입니다.
지식창고, 사건처리 스킬, 틀리지 않는 판례, 내 홈페이지, 원격까지.

2026. 11. 14. 부산 | 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박실로

여는 질문

AI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을 이긴다죠.
그럼 다 같이 쓰면 누가 이깁니까?

오늘 3시간은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사전 설문 ①

여러분은 이미 쓰고 있습니다

19명

사전 설문 응답

11월 12일 하루

18명

돈 내고 쓰는 사람

무료만 쓰는 사람은 1명

16명

거의 매일 사용

하루 종일 켜 두는 사람 5명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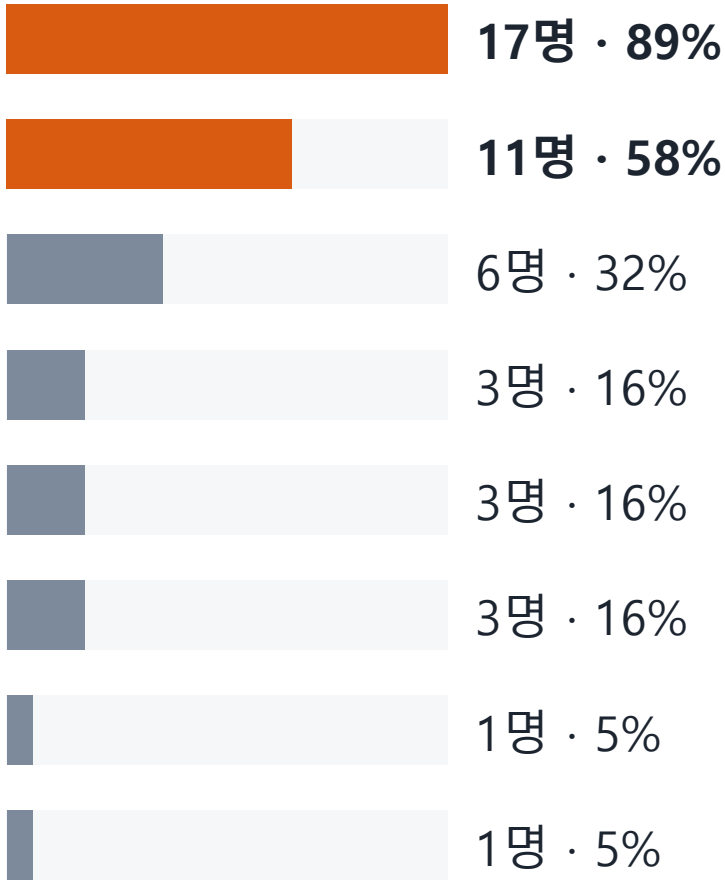
Claude 사용

ChatGPT 12명 · Gemini 8명

쓰느냐 마느냐는 끝난 질문입니다. 오늘 볼 것은 '어디까지 쓰느냐'입니다.

사전 설문 ② 실제로 써 본 기능

그런데 거의 전부 채팅창 안에서만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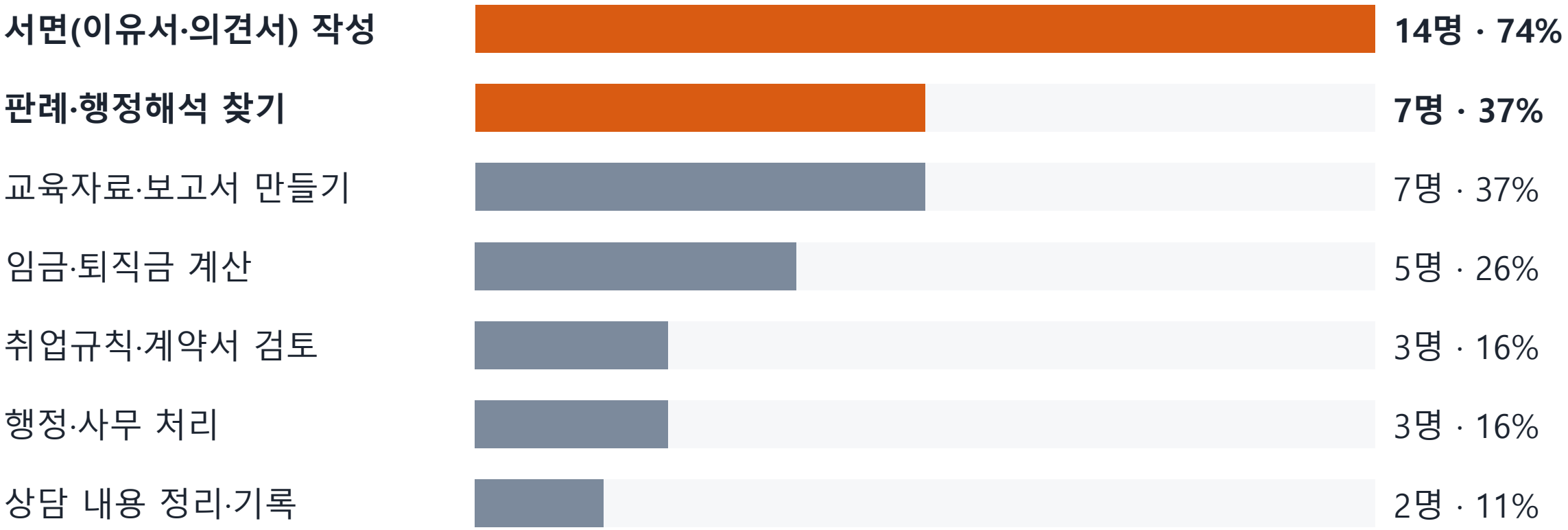
터미널을 열어 본 적 없는 사람
14명

에이전트를 써 본 적 없는 사람
16명

AEO·GEO를 처음 듣는 사람
15명

사전 설문 ③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업무 (3개까지)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은 서면과 판례입니다



그래서 2교시를 통째로 '판례를 틀리지 않는 법'에 씁니다.

사전 설문 ④ 요청사항에서

“AI랑 2~3시간 채팅해야
겨우 결과물이 나옵니다.
Claude가 뱉어내는 판례를
다시 찾아보느라요.”

여러분 중 한 분이 적어 주신 글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풉니다.

진행

오늘 3시간

시간	주제	가져갈 것
1교시 45분	지식창고, 그리고 제 사건처리 스킬	**사건 한 건의 산출물**, 지침 파일
2교시 45분	판례, 100% 안 틀리는 법	**세 번 확인하는 절차**와 지시문
3교시 60분	AEO·GEO → 내 홈페이지·블로그 → 코딩 시작 → 병렬·원격	**홈페이지 첫 지시문**, 오르카, 테일스케일
마무리 4분	다 같이 쓰면 누가 이기나	30일 계획

쉬는 시간은 교시 사이에 두 번입니다. 질문은 언제든 받습니다.

01

지식창고,
그리고 사건처리 스킬

제가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1교시 · 45분

지식창고

저는 기억하려고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기억은 창고에 맡기고, 머리는 판단에 씁니다.

AI는 매번 저를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 폴더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 폴더가 옵시디언입니다.

지식창고

제 옵시디언이 제 뇌입니다



넣는다

상담·판례·실패를 그날 적는다

▼

익힌다

내 말로 다시 써서 서로 잇는다

▼

꺼내 쓴다

필요할 때 AI가 찾아서 가져온다

지식창고

외우지 않고,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서면을 쓸 때	“비슷한 쟁점으로 내가 예전에 쓴 메모를 찾아 줘”
상담 전에	“이 업종에서 내가 자주 놓친 점을 뽑아 줘”
강의를 만들 때	“원격 접속에 실패한 기록을 찾아 줘”
블로그를 쓸 때	“이번 달 상담에서 반복된 질문 세 개를 골라 줘”

오늘 강의도 이렇게 창고에서 꺼내 만들었습니다.

사건처리 스킬

“상담 들어왔어.”
이 한마디로 사건 한 건이 굴러갑니다.

제가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는 스킬을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지식창고에 쌓은 제 방식이 절차가 된 것입니다.

사건처리 스킬

제 사건처리 스킬: 접수에서 최종본까지

01

접수

입장, 5인 여부, 기한.

02

사실·증거

타임라인과 입증연결표.

03

리서치

쟁점별 근거표.

04

초안

근거표에 있는 것만.

05

검증

인용을 한 번에 확인.

06

승인

승인해야 최종본.

단계 번호보다 산출물이 기준입니다. 새 자료가 오면 필요한 단계만 다시 돕니다.

1단계 접수카드

접수: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쓴 초안은 다시 써야 합니다

칸	왜 먼저 묻나
당사자 입장	사용자 자문과 근로자 대리는 **같은 사실에서 논리가 반대로** 섭니다
5인 여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다툼이면 그 자체가 쟁점
기한	기산점과 함께 적습니다. 긴급도는 인상이 아니라 **남은 날**로
예상 산출물	검토메모·구제신청서·진정서·답변서·계산표 가운데 무엇인지
추가 자료	계약서·임금대장·출퇴근기록·처분서·대화 기록 중 없는 것

기한이 오늘·내일이면 정리보다 기한부터 고정합니다.

2단계 산출물

사실·증거: 법적 판단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산출물	내용
타임라인	일자 · 행위 · 주체 · 근거자료를 날짜순으로
확정 사실 / 다툼 사실	**다른 목록으로** 나눕니다. 자료 없는 사실은 [입증자료 미확보]
입증연결표	자료명 · 확보 여부 · 입증 대상 · 원본 필요 여부
증거등급	★★★ 객관 문서 ★★ 메신저·녹음 ★ 진술만
추가 확인 사항	"○○를 확인해야 △△ 쟁점을 판단할 수 있다"

의뢰인 자료는 이름·연락처를 가린 사본으로. 불확실한 숫자는 [판독불가].

3단계 산출물

리서치: 쟁점마다 근거표를 먼저 만듭니다

```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4

쟁점 ①: 해고 사유의 정당성
├ 결론 초안: 해당 / 비해당 / 일부해당 / 신중
├ 법령:      법령명 제○조  (검증 태그)
├ 판례:      법원 · 선고일 · 사건번호  (검증 태그)
├ 행정해석: 기관 · 문서번호 · 일자  (검증 태그)
└ 비고:      반대 근거, 추가 확인
```

- 유리한 근거와 **불리한 근거**를 함께 찾습니다.
- 못 찾으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 초안은 **이 표에 있는 것만** 씁니다.

검증 태그를 어떻게 채우는지가 2교시입니다.

6단계

승인 화면: 긴 문서를 다시 읽지 않습니다

칸	분량
사건	1줄
결론	3줄
쟁점별 근거	쟁점마다 1줄
불확실성·리스크	있는 대로
[검토 필요]와 미검증 항목	전부
선택지	승인 / 수정 지시 / 추가 자료 / 보류

제출·발송, 최종본 확정, 사건 전략과 합의금 판단은 제가 합니다.

비교

같은 사건, 같은 한 문장: 어제 실제로 돌린 결과

	스킬 없이	스킬로
걸린 시간	2분	4분 21초
결과물	완성본으로 저장	**“이대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조문	기억으로 인용	해고일 당시와 현행을 조회해 대조
판례 4건	기억으로 인용, 끝에 “대조 안 함”	원문·변경 여부 확인, **미대조 표시**
덧붙인 것	작성 메모	접수카드, 타임라인, 상대방 논리, 인용 확인표

두 쪽 모두 같은 판례 4건을 골랐습니다. 차이는 문장이 아니라 확인과 표시에서 났습니다.

비교 시연 · 8분

같은 사건을 두 창에서 돌린다

화면에서 하는 것

1. 왼쪽: 스킬 없이 “이유서 써 줘”
2. 오른쪽: 같은 폴더, 같은 문장, 스킬로
3. 두 결과를 나란히 놓고 읽는다
4. 왼쪽 판례 하나를 골라 둔다

여기를 보세요

1. 어느 쪽이 먼저 되묻는가
2. 사실과 주장이 나뉘어 있는가
3. 판례 자리가 채워졌는가, 비었는가
4. 어느 쪽이 승인을 묻는가

여러분의 시작

이 스킬도 결국 글 파일입니다

채팅창

내가 자료를 골라 올린다

지침을 매번 다시 쓴다

결과를 복사해 붙여 넣는다

한 번에 한 가지 일

작업 폴더 (Claude Code · Cowork)

AI가 폴더의 파일을 직접 읽는다

절차를 글로 써 두면 매번 따른다

결과가 파일로 남는다

여러 일을 나눠 맡길 수 있다

터미널이 부담스러우면 Cowork부터. 지침 파일과 폴더는 그대로 옮겨 갑니다.

시작

설치도 시킵니다.
“클로드 코드 설치해 줘.”

저는 웬만하면 명령어를 직접 치지 않습니다. 설치도, 설정도, 오류도 AI에게 말로 시킵니다.
화면별 안내가 필요하면 제 교육 채널을 보세요.

오늘 가져갈 것 ①

첫 스킬은 지침 파일(CLAUDE.md) 한 장입니다

```
# 역할
나는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다.
# 일하는 순서
- 접수: 당사자 입장 · 5인 여부 · 기한부터 확인한다
- 사실은 증거와 함께 쓴다. 없으면 [입증자료 미확보]
- 확정 사실과 다툼 사실을 다른 목록으로 나눈다
- 판례·행정해석은 확인 절차를 거친 것만 쓴다
- 결론 → 근거 → 리스크 → 다음 할 일 순서로 보고
# 하지 말 것
- 원자료 수정, 외부 발송, 파일 삭제
```

이 내용을 말로 불러 주고 “지침 파일로 만들어 줘”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1교시 정리

- **기억은 지식창고에 맡긴다**
  외우지 않고,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 **사건은 산출물로 나눠 맡긴다**
  접수카드, 타임라인, 입증연결표, 근거표, 승인 화면.
- **내 절차를 글로 적는다**
  지침 파일 한 장이 첫 스킬입니다.

쉬는 시간 10분. 터미널이 안 열리는 분은 쉬는 시간에 오세요.

02

판례,
100% 안 틀리는 법

법령정보 MCP · 케이스노트 · HRDB · AI 브라우저를 한 줄로 잇습니다

2교시 · 45분

AI시대의 손자병법 · 장면 3

손자병법에서는 이랬어요

먼저 질 수 없게 만든다.
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

先爲不可勝 以待敵之可勝

선위불가승 이대적지가승 — 〈군형〉편

이걸 AI 시대에서는?

노무사가 AI로 지는 길은 틀린 조문과 없는 판례입니다.
잘 쓰는 법보다 틀리지 않는 절차를 먼저 세웁니다.

이기는 건 시장이 정하고, 지지 않는 건 내가 정한다

실패담

사건번호는 그럴듯했습니다.
검색하니 그런 판결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다른 판결의 판시였습니다. 번호와 내용이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제 의견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원리

AI가 똑똑해져서 100%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서 확인된 것만 싣기 때문에 100%입니다.

AI에게 맡기는 일은 '기억해 내기'가 아니라 '가서 열어 보고 대조하기'입니다.

연결

네 가지를 한 줄로 잇습니다

도구	맡기는 일	여기까지만
법령정보 MCP	조문 현행 본문·시행일, 판례 후보 찾기, 변경·폐기 여부	못 찾아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케이스노트	판결문 본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대조	판례 확인의 첫째 자리
HRDB	판례 한 번 더, 그리고 **행정해석** 원문	판례 확인의 둘째 자리
AI 브라우저 (어사이드·에고 라이트)	내가 로그인한 화면에서 검색하고 본문을 연다	비밀번호는 주지 않습니다

새 서비스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쓰는 케이스노트·HRDB에 AI의 손을 붙입니다.

오늘 가져갈 것 ②

세 번 확인합니다

01

법리를 짚는다

근거표의 빈 자리에 어떤 법리가 필요한지 AI가 말한다.

02

MCP로 찾는다

조문은 현행 본문으로 확인. 판례는 후보와 변경·폐기 여부까지.

03

케이스노트

사건번호로 검색해 본문을 열고 넷을 대조한다.

04

HRDB

같은 판례를 한 번 더. 행정해석은 여기서 원문 확인.

05

싣거나 뺀다

셋이 맞으면 싣고, 하나라도 못 보면 표시하고 뺀다.

조문은 MCP 원문으로, 판례는 두 사이트 본문으로, 행정해석은 HRDB 원문으로.

연결

법령정보 MCP 연결: 세 단계

01

인증키를 받는다

open.law.go.kr 에 가입하고 'Open API 사용 신청'. 무료입니다. 미리 신청해 두세요.

02

커넥터를 추가한다

설정의 커넥터에서 주소 mcp.gomdori.app/law 를 추가. 인증키만 내가 넣습니다.

03

시험한다

"근로기준법을 찾아 시행일을 알려 줘." 답에 도구 호출 표시가 보여야 연결된 것입니다.

정부 공식 서버가 아닙니다. 사건 원본과 개인정보는 넣지 않고, 인증키는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

확인 1단계

지시문 ① 법령정보 MCP: 조문과 판례 후보

법령정보 MCP로 확인해 줘. **기억으로 쓰지 마.**

1) 이 쟁점에 적용되는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
   사건 당시와 지금 조문이 다르면 둘 다
2) 관련 판례 후보를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과 함께
3) 후보마다 **변경·폐기된 판례인지**

못 찾은 것은 'MCP 미확인'이라고 적어.
없다고 단정하지 마.

- 조회 실패는 '통과'가 아니라 **'미검증'**입니다.
- 하급심·비공개 판결은 MCP에 없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나온 판례는 아직 **후보**입니다.

AI 브라우저

AI에게 브라우저를 쥐여 주는 두 도구

	어사이드 (Aside)	에고 라이트 (Ego Lite)
무엇	AI가 조작하는 브라우저. 터미널 한 줄로 일을 맡깁니다	사람과 AI가 함께 쓰는 브라우저. AI는 따로 떼어 준 작업 공간에서 움직입니다
로그인	내가 그 브라우저에 로그인해 둔 사이트를 그대로 씁니다	같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면 멈추고 나에게 넘깁니다
제가 쓰는 곳	서버 관리 화면, 데이터베이스 설정	**케이스노트·HRDB 본문 대조**, 웹 메일

AI 브라우저란 내가 로그인한 화면을 AI가 대신 클릭하고 읽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는 주지 않습니다.

AI 브라우저 설치

AI 브라우저 설치도 세 걸음, 전부 말로

01

앱을 깐다

어사이드, 에고 라이트(lite.ego.app)를 내려받아 설치한다. 직접 하는 것은 여기까지.

02

연결을 시킨다

"에고 라이트를 쓸 수 있게 연결해 줘."
나머지 설정은 AI가 한다.

03

내가 로그인한다

그 브라우저에서 케이스노트와 HRDB에 내가 직접 로그인해 둔다.

어제 저는 로그인을 한쪽 브라우저에만 해 두어서 다른 쪽은 '접근불가'가 나왔습니다.

확인 2·3단계

지시문 ② AI 브라우저: 케이스노트와 HRDB에서 본문 대조

내가 로그인해 둔 **케이스노트와 HRDB**를 직접 열어 줘.

- 후보 판례를 **두 사이트 모두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 판결문 본문을 열어 넷을 대조: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핵심 판시
- 판시는 본문 문장 그대로 옮겨 와
- 못 찾으면 그 사이트 이름과 함께 **'검색결과 없음'**
- 로그인·권한 때문에 못 보면 **'접근불가'**
- 비슷한 다른 판결로 바꿔 넣지 마
- 확인한 주소와 시각을 표로 남겨

로그인은 내가 합니다. AI는 열린 화면에서 검색하고 읽기만 합니다.

대조표

본문에서 대조하는 것

	판례	행정해석
누가	법원	기관
번호	사건번호	문서번호
언제	선고일	회시일
무엇을	핵심 판시사항	본문 취지
어디서	**케이스노트 + HRDB 양쪽**	**HRDB**

요약 화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을 열어야 확인입니다.

표시

결과는 셋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표시	뜻	처리
확인	두 사이트 본문에서 대조했고 변경·폐기도 아님	그대로 싣습니다
검토 필요	한쪽만 확인, 또는 후속 판례·개정 가능성	상태를 적고 내가 판단합니다
미검증	어디서도 본문을 보지 못함	제출문에서 **뺍니다**

‘검색결과 없음’과 ‘접근불가’는 다릅니다. 접속이 안 된 것은 판례가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실제 결과 ①

레드팀 에이전트가 그 초안을 깼습니다

6개

조문

현행 본문과 일치

4건

케이스노트

본문에서 넷 대조

4건

HRDB

본문에서 넷 대조

5곳

문제 문장

근거가 받치지 않는 문장

처음에는 HRDB가 '접근불가'였습니다. 로그인한 브라우저로 다시 돌려 4건 모두 확인했습니다.

실제 결과 ② 판례의 적합성

판례 4건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맞게 썼을까요

대법원 판결	판정	레드팀이 찾은 것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적합	서면통지의 취지. 다만 서면이 교부된 사안이고, 상대방은 2012다81609(사유를 이미 알았던 경우)로 되받을 수 있음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구별이 얕음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이메일로 보낸 사안. 초안은 이 차이를 쓰지 않음
1991. 7. 9. 선고 90다8077	넓혀 옮김	판시에 **"원칙적으로"는 없음**. 소명 기회 규정을 어긴 징계해고에 관한 판시
2003. 7. 8. 선고 2001두8018	법리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건**. "과거의 근무태도"는 사용자가 쓸 수 있음

있는 판례인지 확인하는 것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 사건에 맞는가'입니다.

실제 결과 ③

판결에 없는 문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인용한 판결에는 없는 문장입니다. 근거가 따로 없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판시를 넓혀 옮긴 표현입니다.
- **“금전보상은 심문회의 전까지”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인용한 조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틀린 판례는 0건이었지만, 판례 옆에 붙은 문장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엽니다.

오늘 가져갈 것 ③

이 규칙을 지침 파일에 넣어 둡니다

```
# 판례·행정해석 인용 규칙
- 조문은 법령정보 MCP 원문으로 확인한다
- 판례는 케이스노트와 HRDB 양쪽에 직접 접속해
  법원·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본문에서 대조한다
- 행정해석은 HRDB에서 기관·문서번호·회시일을 본다
- 기억, 다른 AI의 답, 검색 요약은 확인으로 치지 않는다
- 못 찾으면 '검색결과 없음', 못 열면 '접근불가'
- 없는 판례·사건번호·인용문을 만들지 않는다
- 확인한 주소와 범위를 기록한다
```

제 지침에 실제로 있는 규칙입니다. 사진을 보여 주고 “내 지침에 넣어 줘”라고 하세요.

시연 · 7분

판례 한 건을 세 번 확인한다

화면에서 하는 것

1. 1교시 왼쪽 창에서 나온 판례를 고른다
2. MCP로 조문과 판례 후보를 받는다
3. 케이스노트·HRDB에서 본문을 연다
4. 인용확인 표에 주소와 시각이 남는다

여기를 보세요

1. 비밀번호를 AI에게 주지 않는 것
2. '검색결과 없음'을 그대로 보고하는지
3. 판시가 본문 문장 그대로인지
4. 마지막에 내가 원문을 한 번 여는 것

판단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

- **이 판례가 우리 사건에 맞는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는 AI에게 묻고, 판단은 내가 합니다.
- **마지막에 원문을 한 번 연다**
  제출 직전, 실을 판례만 직접 엽니다.
- **검수는 쓴 AI에게 시키지 않는다**
  새 세션이나 다른 모델에게 원자료와 함께 맡깁니다.

2~3시간이 걸리던 '다시 찾아보기'가 절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산도 같은 원리: 암산시키지 않고, 거꾸로 맞춰 본다

급여대장.xlsx 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 줘.

- 암산하지 말고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계산
- 산정 기간, 총 일수, 포함·제외 항목을 표로
- 포함 여부가 애매한 항목은 넣지 말고 나에게 물어
- 끝나면 **결과에서 거꾸로 계산**해 입력값과 맞는지 확인
- 맞지 않으면 완료라고 하지 말고 차이를 보고

근태 → 급여 엑셀도 같습니다. 한 달 치를 사람이 한 것과 맞춘 뒤에 맡깁니다.

요청사항

나머지 요청사항에 답합니다

요청	지금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쥐는 것
산재 (직업력 등)	근무 이력 **연표**, 발병 전 근무시간표, 더 확보할 자료 목록	업무 관련성 판단, 의학 소견 해석
건설일용 급여·신고	공수와 임금 계산·검산, 신고 서식 칸 채우기	**제출**. 신고 자동화는 저도 아직 못 했습니다
한글(hwp) 파일	읽기, 새로 만들기, 원본 서식을 살려 고치기	최종본을 한글에서 열어 확인

hwp는 제가 쓰는 문서 도구(kordoc)로 다룹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2교시 정리

- **AI에게 판례를 기억해 내라고 하지 않는다**
  가서 열어 보고 대조하게 합니다.
- **MCP → 케이스노트 → HRDB, 세 번 확인**
  본문에서 넷을 대조합니다.
- **못 본 것은 뺀다**
  그래서 실린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03

선택받는 구조: AEO·GEO, 내 홈페이지, 코딩

그리고 병렬 작업과 원격까지

3교시 · 60분

AI시대의 손자병법 · 장면 7

손자병법에서는 이랬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 〈모공〉편

이걸 AI 시대에서는?

광고비와 가격으로 맞붙기 전에,
AI가 답할 때 내 글을 근거로 삼게 만드는 일이 AEO·GEO입니다.

비교당하기 전에 선택받는다

홍보

AEO·GEO: 의뢰인이 검색 대신 AI에게 묻습니다

예전

검색창에 '○○ 노무사'

광고와 블로그 목록에서 고른다

여러 곳을 비교한다

지금

AI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해?"

AI가 답과 함께 **출처**를 보여 준다

그 출처가 내 글이면 먼저 연락이 온다

AEO는 '답변에 실리기', GEO는 'AI가 만든 답의 근거 되기'입니다. 할 일은 같습니다.

AEO·GEO ①

AI가 가져가는 글의 순서

01

결론

질문형 제목 바로 아래에 답을 먼저 쓴다.

02

판단 기준

어떤 경우에 그렇고 어떤 경우에 아닌지.

03

절차·준비자료

무엇부터 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04

예외·한계

이 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경우.

05

근거·작성자

근거, 실명과 자격, 고친 날짜.

주제는 키워드가 아니라 실제 상담에서 받은 질문 10개에서 가져옵니다.

AEO·GEO ②

올렸다고 실리는 게 아닙니다: 다섯 상태

상태	뜻	확인하는 곳
등록	검색엔진에 내 사이트를 알림	구글·네이버·빙 관리 도구
소유 확인	내가 주인임을 증명	관리 도구의 확인 표시
사이트맵	글 목록을 전달	처리 상태
색인	검색엔진이 글을 담음	주소 검사
노출·인용	실제 답에 내 글이 나옴	AI에게 직접 물어 본 기록

등록은 요청이고, 색인은 검색엔진의 결정이며, 인용은 그다음 결과입니다.

AEO·GEO ③

감이 아니라 재서 압니다

- **질문 10개를 고정합니다**
  실제 의뢰인이 물을 만한 질문으로.
- **같은 조건으로 AI에게 묻습니다**
  날짜·엔진·질문을 적고, 답과 출처 주소를 그대로 남깁니다.
- **못 잰 것은 0이 아니라 '미측정'**
  확인하지 못한 것을 없다고 적지 않습니다.

제 지식창고에 쌓은 글이 블로그가 되고, 블로그가 AI의 출처가 됩니다.

내 홈페이지

저도 코딩을 배우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AI에게 “네가 해 줘”라고 했습니다.

노무사가 배울 것은 코딩이 아니라 일을 맡기고 결과를 판단하는 법입니다.

내 홈페이지

누가 무엇을 맡나

AI가 하는 일

코드와 설정, 화면 조작

모바일 화면 맞추기

사이트맵·백업·보안 점검

어려운 설정의 변경안 만들기

내가 하는 일

누구를 어떤 문제에서 돕는지 말하기

사실과 공개 범위 확인

로그인·인증·결제는 직접

결과를 보고 최종 확인

도메인의 등록자·결제자·복구 메일은 내 이름으로. 외주에 맡겨도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내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여섯 쪽이면 됩니다

쪽	맡는 역할
홈	누구를 어떤 문제에서 돕는가
소개	실명·자격·소속
서비스	범위·절차·담당
전문 글	질문·답·근거
문의	연락·위치·운영 주체
필수 고지	개인정보·이용 조건

예쁜 명함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AI와 사람에게 알려 주는 기준점입니다.

내 블로그

블로그: 내 것 하나, 네이버 하나

	내 블로그 (워드프레스 등)	네이버 블로그
주인	나. 주소와 글을 내가 통제	플랫폼의 규칙을 따름
역할	**공식 원문**, 오래 남는 자산	발견되는 곳, 현장 이야기
글	깊은 해설과 근거	요약과 다른 관점
연결	원문이 사는 곳	원문으로 돌아오게

워드프레스도 “만들어 줘”로 시작합니다. 설치·기본 설정·백업 점검을 AI가 합니다.

오늘 가져갈 것 ④

코딩 시작: 이 지시문 하나로 첫 홈페이지

새 폴더에 **내 소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줘.

- 나는 [지역]의 공인노무사 [이름]이고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를 돕는다
- 쪽: 홈·소개·서비스·전문 글·문의·고지
- 휴대폰에서 먼저 잘 보이게
- 없는 경력·수상·영업시간은 지어내지 마
- 다 만들면 **내 컴퓨터에서 열어서 보여 줘**
- 공개는 내가 보고 승인한 뒤에

- Claude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합니다.**
- 마음에 안 들면 말로 고칩니다. "제목을 더 크게."
- 공개는 그다음입니다.

코딩 시작

만든 뒤 세상에 내놓는 순서

01

내 컴퓨터에서 본다

휴대폰 화면 크기로도 열어 본다.

02

사실을 확인한다

이름·자격·연락처·경력이 맞는지 내가 읽는다.

03

공개한다

배포 서비스에 올린다. 가입과 로그인은 내가.

04

도메인을 붙인다

내 이름으로 산 주소를 연결한다.

05

검색엔진에 알린다

구글·네이버·빙에 등록하고 사이트맵을 낸다.

처음에는 무료 배포로 충분합니다. 돈이 드는 것은 도메인 정도입니다.

시연 · 6분

소개 페이지 한 장을 그 자리에서 만든다

화면에서 하는 것

1. “새 폴더를 만들고 시작하자”
2. 앞 장의 지시문을 그대로 말한다
3. 브라우저로 결과를 연다
4. “문의 버튼을 맨 위로 올려 줘”

여기를 보세요

1. 코드를 한 줄도 치지 않는 것
2. 말로 고치면 화면이 바뀌는 것
3. 없는 경력을 지어내지 않는지
4. 공개 전에 멈추고 묻는지

한동코어 4세대

같은 방식으로 쌓은 제 사무소의 구조

37개

스킬

노동·안전 22
콘텐츠·문서 15

11개

가드

인용·개인정보
승인·발행 전 점검

1분

막내 노무사 컴퓨터로

플러그인 하나로 설치

같은 지시를 세 번 했다면 스킬로 만듭니다. 2교시의 인용 규칙도 그렇게 굳혔습니다.

병렬 작업

‘여러 개 동시에’는 네 가지가 다릅니다

	무엇	이것만으로는
화면 분할	창을 나란히 놓는 것	같은 파일을 서로 덮어쓸 수 있습니다
작업트리	작업 폴더를 따로 떼어 주는 것	합칠 때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업무 조율	누가 무엇을 맡고 언제 돌려받는지	안 정하면 같은 일을 두 번 합니다
독립 검수	검수자가 실제 결과물을 보는 것	‘완료’ 보고만 보면 검수가 아닙니다

병렬 작업 도구

오르카(Orca): 여러 에이전트를 한 화면에서 보는 관제실

- **새 AI가 아니라 화면입니다**
  세션을 나란히 띄우고 작업 폴더를 따로 떼어 줍니다.
- **처음에는 둘만 띄웁니다**
  왼쪽은 쓰는 세션, 오른쪽은 다른 모델의 검수 세션.
- **저는 업무 이름으로 나눕니다**
  상담 · 프로젝트 협의 · 콘텐츠 개선.
- **단점도 있습니다**
  많이 띄우면 컴퓨터가 무거워집니다.

시연 · 4분

오르카에서 작성과 검수를 나눠 돌린다

화면에서 하는 것

1. 왼쪽: 이유서 초안을 쓰는 세션
2. 오른쪽: 증거표와 대조하는 검수 세션
3. 검수 메모를 왼쪽에 돌려보낸다
4. 검수 세션이 고친 파일을 다시 연다

여기를 보세요

1. 두 세션이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
2. 검수자가 보고가 아니라 파일을 보는 것
3. 내 일: 맡기고, 돌려받고, 판단하기

당신의 시급은 얼마입니까?

운전하는 1시간은 얼마입니까. 퇴근하는 1시간은 얼마입니까.
그 시간에 휴대폰으로 일을 걸어 둘 수 있다면, 그 1시간이 돈이 됩니다.

원격을 하는 이유

일만 하다가 여행도 못 가고, 운동도 못 하실 겁니까?

시간은 돈입니다. 그래서 원격과 모바일을 합니다.
설문에서 원격 기능이 있는지 몰랐다는 분이 10명이었습니다.

원격

원격: 생각나는 순간 일이 시작됩니다

방법	이렇게 시킵니다	이럴 때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 켜 줘." 뜬 QR을 **휴대폰으로 찍는다**	밖에서 이어서 볼 때
클라우드 실행	"이 작업은 클라우드에서 돌려 줘."	내 컴퓨터를 끄고 나갈 때
테일스케일	"사무실 컴퓨터랑 노트북을 묶어 줘."	사무실 컴퓨터 전체를 쓸 때

처음에는 리모트 컨트롤 하나만 해 보세요. 나머지는 제 교육 채널 11강에 있습니다.

원격

테일스케일: 내 기기끼리만 통하는 길

01

앱을 깔고 로그인

사무실 컴퓨터·노트북·휴대폰에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은 내가 한다.

02

묶어 달라고 한다

"이 노트북에서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되게 해 줘."

03

끊겨도 돌게 한다

"접속이 끊겨도 작업이 계속 돌게 해 줘."

04

휴대폰으로 건다

밖에서 사무실 컴퓨터의 AI에게 일을 맡긴다.

저는 사무실 맥미니·NAS·노트북을 이렇게 묶어 둡니다. 설정은 전부 AI가 했습니다.

원격이 막힐 때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이 안 돼.

- **길이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해 줘
- 길은 되는데 안 열리면 **인증 문제인지** 봐 줘
- 컴퓨터가 잠들어 있는지도 확인해 줘
- 원인을 찾으면 고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말해 줘

- 명령어를 외우지 않습니다. **증상을 말합니다.**
- 고치기 전에 먼저 보고받습니다.
- 화면에 뜬 오류는 그대로 보여 줍니다.

닿는 것과 열리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계정 이름을 헷갈려 인증에 네 번 실패했습니다.

시연 · 4분

휴대폰으로 사무실 컴퓨터에 일을 건다

화면에서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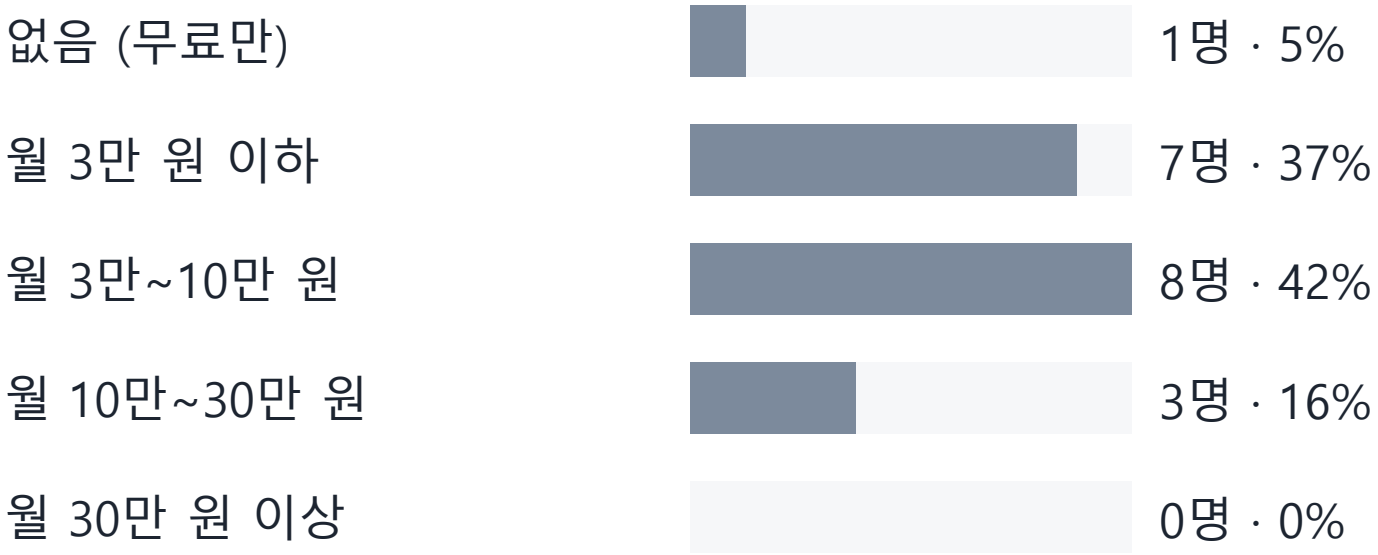
1. 휴대폰에서 사무실 세션에 접속
2. “[입증 필요] 항목을 질문으로 바꿔 줘”
3. 노트북에서 같은 세션을 함께 본다
4. 결과 파일을 연다

여기를 보세요

1. 밖에서 건 일이 사무실에서 도는 것
2. 발송은 하지 않고 초안까지만
3. 돌아와서 결과 파일로 확인하는 것

사전 설문: AI에 내는 월 구독료

구독료는 왜 아끼십니까



하루에 **1시간**을 벌어 준다면

1주일이면 **5시간**

한 달이면 **20시간**

내 시급에 20시간을 곱한 금액과 한 달 구독료를 나란히 놓아 보세요.

내일부터

30일 계획: 한 주에 하나씩만

주	할 일	끝났다는 증거
1주	지식창고 폴더와 지침 파일 만들기	메모 5장, 지침 파일
2주	진행 중인 서면 1건의 판례를 세 번 확인하기	인용확인 표
3주	소개 홈페이지 첫 화면 만들기, 질문 10개 적기	내 컴퓨터에서 열리는 화면
4주	작성·검수 두 세션 나누기, 또는 원격 한 번	검수 메모, 밖에서 만든 파일

소속 노무사는 1주 차에 하나 더: 사무소가 허용하는 계정과 범위를 묻기.

자료

더 배우려면: 제 교육 채널의 해당 강의

오늘 다룬 것	강의 번호
지식창고(옵시디언)	13-3 제2의 두뇌, 16-2 내 지식관리가 곧 AEO다
설치·지침 파일·계산	2-1 ~ 2-4 설치 화면, 3-5 지침 파일, 3-1 퇴직금 계산
MCP와 스킬	8-1 MCP 서버란, 5-3 스킬 만들기
홈페이지 만들고 공개하기	AI업무학교 3-5 바이브코딩, 3-6 공개하기
병렬·원격	10-2 작업트리, 11-1 리모트 컨트롤, 16-9 오르카

edu.silronomu.com · ai-school.silronomu.com 모두 무료입니다.

자료

오늘 자료는 여기서 받으세요

강의 슬라이드

오늘 본 화면 전체 (PDF)

edu.silronomu.com/downloads/busan-20261114/slides.pdf

샘플 사건 묶음

사건 자료, 두 이유서, 레드팀 검수 보고

edu.silronomu.com/downloads/busan-20261114/sample-case.zip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받습니다. 샘플 사건은 교육용 가상 사건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 같이 쓰면 누가 이깁니까

먼저 지지 않게 준비한 사람,
굴러가는 구조를 만든 사람,
그리고 자기 판단에 이름을 거는 사람입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준비돼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가져갈 것: **지식창고 · 세 번 확인 · 내 홈페이지 첫 화면**

질문과 못 다 한 요청사항은 지금 받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박실로

062-521-5678 · 5215678@naver.com · silronomu.com · 스레드 @silrobag